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왕국절 제12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2.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불안과 갈등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문제로 건너뛰며 살다보니 마치 밭이 땅에서 떨어진 것 같아 허둥거리기 일쑤입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 우리 마음은 평안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힘센 자들의 고향소리와 힘없는 이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주님을 반석이라 고백하면서도 속절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팍팍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은혜의 쟁길 날로 갈아엎어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품게 해주십시오. 손사래를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유한한 것들에 마음 두지 말게 해주시고,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66:20
인도자	
♠ 교 독 문	2. 시편2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김문주 선생 II. 윤석철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78.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다함께	
성경봉독	눅11:1-4
인도자	
	수24:14-21
인도자	
찬 양	성가대
말 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김기석 목사	
	언약 갱신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고통이 예기된다 해도 진리에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진리를 위해 당하는 고통은 더 큰 기쁨을 낳습니다.

다 함 께 : 주님, 우리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인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어둠을 타하기보다는 새벽을 기다리며 끝끝내 하나님 편에 서는 자유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성지 이야기(1)	신명기 강해(21)
김기석 목사	기도 : 최성애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박인혁 선생 김재흥 목사	인도자 허정윤 권사

11월	영접위원	이용한	조문규	이재구	조병주	장혜숙	백혜숙
	헌금위원	한완식	박창운	김인걸	최종원	곽해자	이순정

이 세상 어딘가엔

날이 춥습니다. 거리에 텅구는 플라타너스 잎 하나를 집어 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웬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도심의 낙엽은 자기의 본래 고향인 땅에 닿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다가 쓰레기차에 실려 쓰레기장으로 갈 뿐입니다. 도시에서는 이처럼 자연의 순환과정조차 방해 받고 있습니다.

사는 게 어려워서인가요? 사람들의 얼굴이 놀라울 정도로 굳어 있습니다. 환한 얼굴을 보기 어렵습니다. 교우들의 얼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물으면 별 일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내 얼굴이 어두워 집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내적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성 프란시스》의 한 대목이 떠오르네요.

<한겨울에 편도나무가 활짝 꽃을 피우자, 그 주위의 모든 나무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허영이지?”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렇게 교만할 수가! 생각해 봐, 그렇게 해서 봄을 오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지!” 편도나무의 꽃들은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용서하세요, 자매님들” 하고 나무는 말했습니다. “맹세코 나는 꽃을 피우고 싶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내 가슴속에서 따뜻한 봄바람을 느꼈어요.”>

한 겨울에도 가슴에 따뜻한 봄바람을 느끼는 사람은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프란시스뿐이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에도 베드로의 가슴에도 그 봄바람은 어김없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의 사람이 되었지요. 그 기쁨 때문에 예수의 춤을 추며 세상을 떠돌았지요. 하비 콕스는 《바보제》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춤꾼들의 스승이래요. 춤추는 솜씨가 기막히다요. 오른쪽으로도 도시고 왼쪽으로도 도시고...우리 모두 재치있게 배워야 하요."

우리가 생명의 봄바람을 맞아 신명난 춤을 추면 생명은 절로 깨어날 것이고, 우울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리듬을 타다가, 박수를 치다가, 어깨를 들썩거리다가, 마침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춤판에 뛰어들겠지요. 마티스의 그림에 나오는 춤추는 사람이 어디 따로 있나요?

그런데 그 봄바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목시록의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요?

살아 있기에 춤을 추어야 하지만, 중동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때문에, ‘유령의 분노’(미국의 팔루자 공습의 작전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춤출 흥을 잃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의 참상이 보이고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자 문밖까지 달려나와 맞아주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무 말도 없이, 돌아온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부둥켜안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전쟁을 기뻐하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씨앗’이 있게 마련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 말입니다. 저는 어두운 생각을 몰아내려고 목청껏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석)

이 세상 어딘가엔 남이야 알든 말든
착한 일 하는 사람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밝아진다

이 세상 어딘가엔 탐욕과 분심 눌러
얼굴이 빛나는 이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밝아진다

이 세상 어딘가엔 청빈을 감수하고
덕행에 힘쓰는 이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씻기운다

이 세상 어딘가엔 하늘을 외경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 있는 걸 생각하라
기뻐서 눈물난다

■ **마/음/으/로/읽/는/글**

주님에 대한 감사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
푸른 산에서는 상쾌한 공기 받고
넓은 바다에서는 맛난 물고기를 받는데
우리는 답례로 기도만 하는데
사랑의 예수님은
생명마저 나누어 주시네

성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인가
펼쳐진 들판에선 값진 고기 받고
조그만 웅달샘에선 시원한 물을 받는데
우리는 보답으로 찬양만 하는데
은혜로운 하나님은
한없이 주기만 하시네
—유초등부 2학년 최명하 어린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윤석철 장해숙 백승민 김필순 안정숙 박애순 김순복
 전영웅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윤미경 임고운 박재실 박홍재 김희진
 박두석 이권화 영혜영 길민수 조관행 홍선희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백요현 권미정 전영규 김경수 김정섭 송의섭 조동길
 배부례 서재홍 박현우 임원민 임수연

감사헌금:

홍정선 김종현 이인섭 조병주 조병무 송양진 오승경 명형식 서정순
 김혜선 최신덕 무명1

생일감사헌금: 박옥식 조관행 홍선희 송희원 김재환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해 심	조 순 덕	박 영 희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김 윤 수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소 순	이 재 문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이 봉 배	박 경 원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조 병 주	문 금 석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김 경 수	문 복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송 의 섭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김 재 광	오 성 희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장 해 숙	이 순 정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이 명 희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김 진 경	김 정 섭
나 사 렷	백 해 숙	정 옥 영	정 옥 영	백 해 숙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안 경 숙	송 양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김 성 자	박 미 영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박 혜 경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오후집회** : 성지에 다녀온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찍어 온 사진을 함께 보며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 **바자회** :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나눔과 사귄의 축제인 바자회가 열립니다. 수익금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 **농산물 판매** : 천안 단비교회의 정훈영 목사님과 교우들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쌀과 잡곡을 판매합니다. 생명 세상은 생명 식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4. **평화포럼** : 감리교 평화교육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월례 포럼이 18일 (목) 오후 3시에 감리회관 13층 소강당에서 열립니다.
 강사 - 정지석 목사(크리스찬 아카데미, 한신대 강사)
 주제 - 기독교 평화운동과 평화교육
5. **결산 및 보고** : 각 부와 선교회는 다음 주일까지 금년도의 활동 내용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목회계획세미나** : 담임목사는 15-16일 양일간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중구용산지방의 목회계획 세미나에 다녀오겠습니다.
7. **세례입교신청** : 금년도 성탄절에 세례 받거나 입교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 (21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예비교육에 참여하십시오.
8. **신앙실천** : 올해가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중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 헌화 : 한인철 목사 조윤숙 사모 (결혼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